

# 한국어 착각 표현의 한두 유형: ‘알다’ 구문과 ‘너지다’ 구문을 중심으로

이 현 희\*

## I. 들어가기

이 글<sup>1)</sup>은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별로 언급된 적이 없는 錯覺 表現과 관련된 몇 문제를 통시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소묘해 볼 목적으로 작성된다. ‘착각’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으로 뜻풀이되어 있는데, 넓게는 ‘誤認’이나 ‘誤解’와도 통할 수 있다.

현대어에서는 ‘알다’ 구문을 언급하면서 事實性의 여부와 관련하여 ‘줄(로)(만) 알다’ 구문이 관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 (1) a. 나는 철수가 아까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태 가지 않았구나.
- b. 나는 철수가 아까 간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여태 가지 않았구나.
- c. 나는 철수가 아까 간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여태 가지 않았구나.
- d. 나는 철수가 아까 간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여태 가지 않았구나.

(1)의 ‘알-’ 자리에 ‘여기-’를 대치해 넣어도 동일한 표현 효과를 보이며, 앞 문장의 ‘철수가’는 ‘철수를’로 실현되어도 그 표현 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 글은 2012년 12월 17일(월)에 열렸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발표회에서 발표된 요지문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현된다.

우리는 (1a~d)에서 명사구 보문 구성 ‘철수가 아까 간 줄’ 뒤에 각각 ‘-Ø’, ‘-만’, ‘-로’, ‘-로만’이 통합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알-’ 등의 인지동사 구문이나 ‘너가’ 등의 사유동사 구문에서 ‘NP를 NP로 V’ 형식의 구문구조가 근대어 단계에 새로이 형성되어 나옴에 주목하고 위 (1)의 현상에 접근해 가기로 한다.

## II. 중세어에 착각 표현 구문이 존재하였는가?

중세어에서는 ‘NP를 S’ (그르,<sup>2)</sup> 외오 알다’ 형식으로 착각 표현을 나타낼 수 있었고, ‘너기다’ 구문도 특수한 문맥에서만 착각 표현을 나타낼 수 있었다. 여기에 한 예씩만 들기로 한다.

(2) 외오 薊子<sup>1</sup>라 아라사들 붓그리고 眞實로 揚雄을 우수를 怯<sup>2</sup>호노라(謔慙知薊子 眞怯笑揚雄) (두시언해 초간본 21: 2)

(3) 여섯 가지 불휘는 눈과 귀와 고과 혀와 몸과 뽀래니 凡夫<sup>1</sup> | 妄量으로 자바 實<sup>2</sup>호 것만 너겨 種種 모딘 罪業이 일로 브터 날씩 불휘라 호니라 (석보상절 13: 38)

(2)의 ‘薊子<sup>1</sup>라’는 ‘외오 알-’에 관련된 내용절인바, (2)의 밑줄 친 부분은 “계자”가 아닌데 “계자”라고 착각하였음을 표현한다. (3)은 ‘여섯 가지 불휘: 눈·귀·고·혀·몸·뽀’을 범부는 잘못된 셈으로 헤아려 “실하지 않은 것”인데도 “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NP를 외오 너기다’ 구성은 착각 표현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4) a. 波羅捺王이 이 일웃 드르시면 날 외오 너기사<sup>1</sup>미 적디 아니호시리라 (월인 석보 22: 59)

2) 근대어 단계에는 ‘그릇’으로 대체된다.

- b. 네 구둣여 이 여섯 댁요댁 이디 댁호댁 외오 너겨 흐나 이로댁 願禧 댁댁  
 쏘 엇댁 得禧다(汝必嫌此六結의 不成 흐야 願樂一成인댁 復云何得禧다) (능  
 업경언해 5: 22)

(4a)의 ‘날 외오 너기사댁’은 “나를 잘못이라고 여기심이” 또는 “나를 그릇  
 되다고 여기심이”의 의미를 가지고, (4b)의 ‘이 여섯 댁요댁 이디 댁호댁  
 외오 너겨’는 “이 여섯 가지의 댁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잘못되었다고 여겨”  
 의 의미를 가진다. 즉, ‘NP를 외오 너기다’ 구성은 “NP가 [잘못이라고, 틀  
 리다고 여기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 착각 표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중세어 문헌자료에 ‘NP를 VP-(ㄴ, 리) 즐(을) 알다’ 형식의 문장이 존재  
 하지만, 착각 표현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事實性的의 여부는 문맥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5) a. 쑤이 어울댁 일후댁 色이라 댁호리니 쑤이 和습 아닌 주댁 알댁면 色이 和습  
 아니로다(쑤이 습호면 則不應名色이니 知쑤이 非和습호면 則色이 非和습矣  
 로다) (능업경언해 3: 70)
- b. 玉수이 댁티 댁홀 즐을 알고 목 댁야 죽으니라 (속삼강행실도 25)
- (6) a. 댁의 브스름이 처댁 난 즐 알오 드외오져 호디 댁 드외야져 불겨 댁달오  
 알뜨거든(凡人初覺發背欲結未結赤熱腫痛) (구급간이방 3: 46)
- b. 치운 후에사 소남기 후에 댁러디댁 알리라 흐니 이제사 댁댁 댁도 댁연티  
댁홀 즐 알와라 흐더라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 11)
- (7) a. 父母이 다댁 깃븐 즐만 알오 내중내 이거시 어드러셔 온 것고 흐야 댁디  
 아니흐니(父母 但知喜悅호고 竟不問此物은 從何而來오 호느니) (번역소학  
 9:51)
- a'. 父母이 다댁 깃거홀 즐만 알오 내중내 이거시 어드러 초차 오노 댁디 아니  
 호느니 (父母 但知喜悅호고 竟不問此物이 從何而來호느니) (소학언해  
 6:47)

(5), (6), (7)의 밑줄 친 부분은 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을 담담하게 서술한 것이다. (7)의 ‘-만’은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데,  
 (7)의 밑줄 친 부분이 착각 표현이 아님에 일단 유의해 두기로 한다.

중세어에는 ‘NP를 S 알다’ 형식이나 ‘NP를 NP로 알다’ 형식의 문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근대어 단계에 이런 형식의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올지 제3장에서 관찰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중세어에서는 ‘알다’ 구문과 관련된, 전형적인 착각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세어에서의 ‘너기다’ 구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될 수 있다(이현희 1994, 2005 참조).

- 〈1〉 ‘{NP, VP-음, VP-(ㄴ, 리 ㄷ)} +를 너기다’ 형식
- 〈2-1〉 ‘({NP-를, V-오물, V-(ㄴ, 리 ㄷ)}) ADP<sup>3)</sup> 너기다’ 형식
- 〈2-2〉 ‘{NP-에, 홈-으로} ADP 너기다’ 형식
- 〈3-1〉 ‘S<sup>4)</sup> 너기다’ 형식
- 〈3-2〉 ‘NP-를 S’ 너기다’ 형식
- 〈3-3〉 ‘NP-에, 로 S’ 너기다’ 형식
- 〈3-4〉 ‘{너교되, 너규메, 너기노니, 너계} S (ㅎ-)’ 형식
- 〈3-5〉 ‘NP-를 너교되 S’ (ㅎ-)’ 형식
- 〈4〉 ‘VP-(고져, 오려) 너기다’ 형식 등등.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문유형은 〈2-1〉 ‘({NP-를, V-오물, V-(ㄴ, 리 ㄷ)}) ADP 너기다’ 형식과 〈3-2〉 ‘NP-를 S’ 너기다’ 형식이다.

먼저 〈2-1〉 ‘({NP-를, V-오물, V-(ㄴ, 리 ㄷ)}) ADP 너기다’ 형식을 살펴 보기로 한다.

- (8) a. 衆生이 저근 惡을 므더니 너겨 (월인석보 21: 78)
- b. 韋侯 韋侯야 즈조 서르 보노니 내 ㅎ 匹사 도흔 東掖 기블 뒤쇼되 얏교물  
錦繡段에 디우 아니 너기노라(韋侯韋侯數相見 我有一匹好東絹 重之不減錦繡  
段) (두시언해 초간본 16: 34)
- c. 世間스 드틀을 므슴만 너기시리 (월인천강지곡 상, 기 125)
- c'. 오늘 모랫는 한 사르미 邪曲흔 道理 ㅅ환 디 오라야 제 노포라 ㅎ야 衆生  
을 프성귀만 너기노니 엇던 德으로 降服히려노 (석보상절 6: 28)
- c''. 내 모미사 디셋 즈벽만도 ㅅ물 너기시리로다 (월인석보 22: 48)

3) ‘ADP’는 부사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4) ‘S’는 주술구조를 완전히 갖춘 문장을, ‘S’은 주어 부분이 상위문의 목적어와 동일하여 생략된 문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d. 兄은 富貴를 가져 浬 구름과 忽가지로 너기거늘(兄將富貴等浮雲) (두시언해 초간본 8: 27)
- e. 長常 篋箒를 여러 더의 尺寸물 보는 寸시 너기노라(長開篋箒擬心神) (두시언해 초간본 9: 26)
- f. 巫峽을 浬득 華嶽 보는 寸 너기며(巫峽忽如瞻華嶽) (두시언해 초간본 3: 37)
- g. 나라해 도라오사도 즈올아비 아니흐샤 아랫 恩惠를 니저브리샤 길 浬 사 름과 寸티 너기시니 (석보상절 6: 5)
- g. 箕山 浬水스 客이 榮華르외며 貴호물 浬 寸티 너규물 寸히 浬기리로다(足明箕浬客 榮貴如糞土) (두시언해 초간본 9: 9)

이 형식에 들어 있는 ‘NP를’의 ‘NP’와 ADP 사이에는 대개 의미상 주어-서술어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미 이현희(1994: 300-303)에서 행해진 바 있다.

착각 표현과 관련하여 위 형식에서 주목되는 것은 특히 (8c, c', c'')의 ‘NP-를 NP-만 너기다’ 구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NP-만’의 ‘-만’은 [정도]와 [한정]의 의미를 가져 중의성을 보인다. ‘NP-를 NP-만 너기다’ 구문에서의 ‘-만’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바, 그 전체는 “NP를 NP 정도로(쯤으로) 여기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NP-를 NP-만 너기다’ 구문은 정밀한 사유가 아니라 개략적인 사유를 함을 표현한다고 할 것이다.

‘NP-를 NP-만 너기다’ 구문에서의 ‘-만’이 조사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문증되는 ‘날만’의 성격을 이미 탐색해 본 바 있다(이현희 2009, 2010, 2011).

- (9) 내 아시 오래 병혀여 누엇더니 날만 슬지디 못흐니라(禮, 久臥羸疾, 不如孝肥飽)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 6)
- (10) 내 아으는 오릭 주러 날만티 슬디디 못흐니 청컨대 날을 슬므라(禮, 久餓羸疾, 不如孝肥飽) (오륜행실도 4: 10)

(9)와 (10)은 대비되는 문장들이다. ‘날만’(“나만큼”의 의미를 가짐)은 ‘나(我) +만’의 통합과정에서 ‘ㄹ’이 덧붙은 것이고 ‘날만티’는 ‘나(我) + 만티’의 통합과정에서 ‘ㄹ’이 덧붙은 것이다. 이현희(2010, 2011)에서 이미 ‘날로, 날와’ 등 1음절짜리 개음절 구조를 가지는 대명사에 문법형태소가 통합할

때 ‘ㄹ’이 덧붙는 현상을 토대로 하여, 역으로 ‘ㄹ’ 덧붙음 현상은 ‘-로’, ‘-와’ 등이 조사임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기제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런 해석 원리를 따를 때, ‘날만’이나 ‘날만티’의 ‘-만’과 ‘-만티’는 문법형태소, 즉 조사라고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착각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너지다’ 구문은 ‘NP를 S’ 너기다’ 형식에서 살필 수 있다.

- (11) a. 이 무리 罪 根고 増上慢 訶야 몬 得 訶 이를 得 訶라 너기며 몬 證 訶 이를 證 訶라 너겨 이런 허므리 이실씩 잇디 몬 訶거늘 (석보상절 13: 46)  
 a'. 이 무리 罪根이 根고 増上慢 訶야 몬 得 訶 이를 得 訶라 너기며 몬 證 訶 이를 證 訶라 너겨 이런 허므리 이실씩 잇디 몬 訶거늘 (월인석보 11: 108)

문장 내용 그대로 ‘得하지 못한 일’을 ‘得하였다고 여기’고 ‘證하지 못한 일’을 ‘證하였다고 여기’는 일이야말로 착각 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NP-를 NP-만 너기다’ 형식과 ‘NP를 S’ 너기다’ 형식은 S’이 ADP와 같은 표현효과를 가지는 파편문임을 잘 보여 준다. 달리 말하자면, [부사어 # 너기다 전체가 타동구성으로서 목적어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근대어에 착각 표현 구문이 존재하였는가?

근대어에서는 ‘NP-를 NP-만 너기다’ 구문의 두 번째 NP가 의문사<sup>5)</sup>가 아닐 경우 착각 표현으로도 전용되어 쓰인다.

- (12) a. 해 저 어둡거늘 밤들만 너겼더니 덧업시 불가지니 썬 날이 되어피야 (악학습령 46)  
 b. 나는 그러도 위인을 사름만 너겼더니 원간 증성이랴다 (낙성비룡 1: 34)

5) ‘므슴만, 므엇만, 무엇만, 놀만’ 등이 그 예들이다.

- c. 온 비 그 비만 여겨편니 고기 낙는 어선이로구나 (악부 上 1, 53)  
 d. 玉을 玉이라 커든 荊山 白玉만 여겼더니 다시 보니 紫玉일 시 的實하다  
 (악학습령 545)

접속문의 선행문과 후행문 사이의 관계에서 앞 문장이 착각 표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2a)는 “해가 저서 어둡기에 밤중인가 하였더니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침임”을 새로이 알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고, (12b)는 “나는 그래도 그 사람됨을 사람인 줄로만 여겼더니 사실은 원래 짐승이었음”을 새로이 알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12c)는 “온 배가 그 배인 주로만 여겼더니 사실은 낚싯배임”을 새로이 알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고, (12d)는 “옥을 옥이라 해서 형산의 백옥인 줄로만 여겼더니 다시 보니까 자목임이 분명함”을 새로이 알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행문에는 [새로이 깨달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기도 한다.

근대어 단계에는 중세어 단계에 보이지 않던 ‘NP를 NP로 너기다’ 형식이 새로 나타난다.

- (13) a. 엇디흔디 일이 만하 問安도 즈로 畵디 못하니 일뎡 정 업슨 양으로 너기 시는가 ㅁ음의 걸리옵니 (첩해신어 초간본 2: 16)  
 b. 朝鮮 家風이 페롭디 아닌 일을 페로올 양으로 너기니 (첩해신어 초간본 5: 22)  
 c. 이러트시 ㅁ음대로 흔다 만다 ㅎ면 誠信의 희이침으로 너기거니와 (첩해신어 초간본 4: 21)  
 d. 이 若衆들흔 유여호믈 웃듬으로 하니 귀흔 禮物을 ㄱ춤이 웃듬으로 너기 오니 그리 아옵소 (첩해신어 초간본 9: 11)  
 e. 서로 더브러 나라 병환을 ㅁ이고 더리틀 원슈로 너기니 (명의록언해 2: 45)  
 f. 그 세지 ㅁ들은 심히 총명준슈하고 원편 발바당의 쌍사마귀 잇는지라 부뷔 보빅로 너기더니 (경신록언석 34)

‘NP를 NP로 너기다’ 형식에서의 조사 ‘-로’는 [결과]의 의미를 가진다. 이 형식에서는 착각의 의미가 거의 표현되지 않는다. 문맥에 따라 간혹 착각을 표현해 낼 수는 있다. (13b)만이 착각 표현에 가까운 문맥의미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착각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NP를 ADP 너기다’ 형식의 ADP에도 보조사 ‘-만’이 통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만’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의] 의미를 가짐에 유의해야 한다.

- (14) a. 代官네도 아르시건마는 종시 올히만 너기시는 일은 (첩해신어 초간본 4: 15)  
 b. 너의 급히 도라오를 반드시 정 업시만 너길 거시오 (완월회맹연 24534)

이와 같이 ADP에 보조사 ‘-만’이 통합한 예는 극히 드물게 보인다. (14)도 착각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NP를 NP로(만) 알다’ 형식 및 ‘NP를 V-(ㄴ, ㄹ) 줄(로)(만) 알다’ 형식도 근대어 단계에 새로 나타난다.<sup>6)</sup>

- (15) a. 우리들은 공을 十首一枕으로 알고 입습논던 공이 마자 그리 薄情이 하시니 놀을 믿고 홀가 시보온고 (인어대방 6: 4)  
 b. 피오시 히여져 무릅을 가리우지 못헛엇거늘 보는 지 그 집 비자로 알앗더니 추후 알미 이 곳 부인이라 (태상감응편언해 5: 29)
- (16) a. 광한투의 바람 썰 제 추천흐는 저 원광을 선녀로만 알아더니 정디흐 그 답장이 의리가 발가우나 (신재효판소리사설 1, 29)  
 a'. 광흐누 바람 쌀 제 추천흐던 네 원광을 선여로만 보왔든니 정당흐 그 답장으 으리가 발것고나 (춘향가, 백성환창본 15)  
 b. 이거시 쏘이냐 상시냐 나는 너를 죽은 줄노만 알앗더니 (숙향전, 경판 64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71)
- (17) a. 암되 가도 부자되제 글헐 줄만 아라씨니 세승이 공도 업쇼 쓸쓸 (신재효판소리사설 2, 24)  
 b. 이 썩에 삼낭즈는 흥히 중 들어가서 죽은 줄만 아라씨니 옥황승제계옵서 남히 용왕제 전교하시되 (심청가, 신재효본, 25)

이들은 다 현대어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바, 착각 표현을 담당한다.

6) 16세기에 극히 일부 보인던 ‘NP를 ADP 알다’ 형식이 착각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禪者과 敎者과 다 일홈만 아라 或 너튼 거슬 기피 알며 或 기픈 거슬 너티 아라’(선가귀감 상 9a)가 그 한 예를 보인다.



한재영(1996: 311)에서는 ‘님금과 아버와 흔가지로 너겨 호미라 ㅎ고 종용히 죽겨늘’(속삼강행실도 효자도, 초간본 33)의 ‘흔가지로’를 현대어의 ‘-로 여기다’의 ‘-로’와 같은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합성어는 ‘흔가지’는 “같은”의 의미를, 부사 ‘흔가지로’는 “같이”의 의미를, ‘흔가짓’은 “같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흔가지로’에 들어 있는 ‘로’를 여느 격조사 ‘-로’와 동질적인 문법요소로 파악할 수 없다.

황국정(2009: 289-293)에서는 ‘NP이 NP를 V’의 구문이 ‘NP이 NP를 NP로 V’ 구문으로 논항구조가 증가할 뿐 아니라 확장된 논항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듣다, 믿다, 일꾼다’ 구문이었다고 하면서, 이들은 ‘NP로’ 논항이 형성되면서 결과의 ‘S-고’ 논항이 함께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매우 시사적이라 할 만하다.

중세어에서의 유사 구문구조에 나타나는 결과의 명사구는 ‘-애’에 통합하거나 ‘-으로’에 통합하여 나타났는데, 그 예가 극히 드물었다.

- (18) a. 내 實인 사르미어늘 네 믈스미 모덜씩 나를 金翅鳥애 보느니라(我實是人汝惡心故見我是鳥) (월인석보 7: 48)  
 b. 이 십이 ㅁ장 도흐니 었디 둥뽀오 보느다(這蓼絕高 怎麼做着中的看) (번역노걸대 下 57)

(18)은 두 종류의 ‘보다’ 구문, 즉 시각경험구문과 인식경험구문 가운데 인식경험구문에 해당한다.

현대어에서는 ‘NP를 ADP 너기다’ 형식이 힘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겨우 ‘NP를 A-게 여기다’(A: 형용사) 형식으로만 잔존하게 되었고, ‘NP를 NP만 너기다’ 형식은 완전히 소멸하였다. 전자는 착각 표현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었고, 후자는 전형적인 착각 표현에 해당하던 것이었다. 앞의 예문 (15)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근대어 단계에 새로이 등장한 ‘NP를 NP로 알다’ 형식이 착각 표현을 담당하게 되면서 ‘NP를 NP만 너기다’ 형식의 소멸을 대신하게 되는 과정에 일종의 통사적 혼효현상이 일어나 ‘NP를 NP로 알다’

7) 중간본에는 ‘님금과 아버와 흔가진가 너겨 호라 ㅎ고 從容히 죽겨늘’(속삼강행실도 효자도, 중간본 33)로 되어 있다.

형식 외에, ‘NP를 NP만 알다’ 형식과 ‘NP를 NP로만 알다’ 형식도 새로이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김지홍(2010: 253)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행하고 있다.

- (19) a. 철수는 만주먹만으로 사업을 일으켰다.  
 b. 철수는 만주먹으로만 사업을 일으켰다.  
 (20) a. 그는 영수를 바보로만 본다.  
 b. \*그는 영수를 바보만으로 본다.

위의 (19)에서 보듯이 조사 ‘-으로’ 앞에 [한정의 ‘-만’은 올 수 있지만, [정도의 ‘-만’은 올 수 없는 것이다. 착각 표현에 참여하는 보조사 ‘-만’이 [한정의 것이 아니라 [정도임을 이것을 통하여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

#### IV. 나가기

이 글에서는 한국어에 과연 착각 표현이 존재하는지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중세어에서는 ‘너지다’ 구문의 일부 형식이 그에 참여하고 있었고, 근대어에서는 ‘알다’ 구문의 일부 형식이 그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세어와 근대어의 ‘NP를 NP만 너지다’ 형식에 들어 있는 ‘-만’은 [한정의 것이 아니라 [정도의 것이었다. 이 형식이 소멸되면서 근대어에서는 새로이 ‘NP를 NP로 알다’ 형식이 착각 표현을 일부 담당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NP를 NP로만 알다’ 형식과 ‘NP를 NP만 알다’ 형식이 일종의 통사적 혼효현상에 의하여 형성되어 나온 것이라 관찰되었다. 물론, 이 형식들에 들어 있는 ‘-만’도 [정도의 것이었지 [한정의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관찰한 것은 극히 피상적인 것이다. 앞으로 한층 더 깊은 탐색이 더 행해져 한국어의 착각 표현에 대한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참고문헌

- 김지홍(2010), 《국어 통사·의미론의 몇 측면: 논항구조 접근》, 도서출판 경진.
- 김홍수(1993),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국어학총서 15, 탑출판사.
- 변정민(2002), 〈국어의 인지(認知) 동사 연구: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 《우리말의 인지표현》, 월인.
- 선지성(2005), 〈한국어 필수 부사어 연구: 서술어와의 통사·의미적 상관성〉, 언어학연구 100,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 오경숙(2009), 〈‘줄 알다’, ‘줄 모르다’와 사실 인식 표현〉, 《한국어 의미학》 30, 143~161.
- 유동석(1983), 〈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國語學》 13, 119~144.
- 유현경(2004), 〈한국어에 심리타동사가 있는가?〉, 《배달말》 34, 27~49.
- \_\_\_\_\_ (2005), 〈부사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29, 159~185.
- 유혜원(2004), 〈‘NP-로’를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 연구〉, 《한국어학》 24, 189~220.
- 윤혜영(2008), 〈‘너지다’류에 나타난 어찌마디 연구: 15·16세기 중심으로〉, 《한말연구》 23, 235~266.
- \_\_\_\_\_ (2010), 〈‘너지다’류에 나타난 어찌마디 연구: 17·18세기 중심으로〉, 《한말연구》 27, 157~194.
- \_\_\_\_\_ (2011), 〈‘너지다’류에 나타난 어찌마디 연구: 19세기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0, 129~153.
- 이남순(1983), 〈‘에’와 ‘로’의 통사와 의미〉, 《언어》 8.2., 213~239.
- 李秉根(1994), 〈近代國語 用言의 語彙文法的 特性: ‘알다/모르다’의 사전적 처리〉, 《東洋學》 24, 1~23. [이병근(2000)의 422~455면에 재수록됨.]
- \_\_\_\_\_ (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 구조 연구》, 월인.
- 이윤하(2005), 〈‘-(으)로’ 조사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41, 133~169.
- 이은섭(2008a), 〈‘여기’ 구문과 ‘삼’ 구문에서의 ‘로’ 부사어의 통합적 의미역 할당〉, 《開新語文研究》 27, 41~73.

- \_\_\_\_\_ (2008b), 〈‘여기’ 구문에 대하여: 구문 유형과 사유의 속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53, 141~175.
- 이인모(1976), 《고전국어의 연구(증보개정판)》, 선명문화사.
- 이정민(2000), 〈상태변화 및 창조동사의 의미구조(논항 및 상)〉,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 113~181.
- 李禎植(2001), 〈多義 現象에 대한 發生論的 研究: ‘알다’를 中心으로〉, 《語文研究》 29.3, 74~86.
- 이지수(2007), 〈부사격 조사 ‘에’와 ‘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49,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이지영(2005), 〈認識의 관점에서 본 ‘알-’의 意味와 統辭의 特征〉, 《語文研究》 33.4, 109~134.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_\_\_\_\_ (2001), 〈‘도히 너기다’ 구문과 ‘도하 흥다’ 구문〉,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323~335.
- \_\_\_\_\_ (2005), 〈15세기 국어 동사 ‘너기다’ 표제항의 용례 배열〉, 《한국사전학》 5, 57~77.
- \_\_\_\_\_ (2009), 〈‘대로’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제9회 국어연구회 학술발표회, 1~26.
- \_\_\_\_\_ (2010), 〈‘채’와 ‘째’의 통시적 문법〉, 《奎章閣》 36, 73~134.
- \_\_\_\_\_ (2011), 〈‘날X’의 通時論〉, 韓國語文教育研究會 第182回 全國 學術大會, 85~100.
- 임준서(1996), 〈한국어 어휘부 구축을 위한 단문 구조 기술의 연구: NP-로를 중심으로〉, 《언어》 21.1, 527~556.
- 任洪彬(1974), 〈(로)와 선택의 양태화〉, 《語學研究》 10.2, 143~159.
- 韓在永(1996),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研究》, 신구문화사.
- 황국경(2005a),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논항구조 변화 연구(2): ‘NP로’ 논항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7, 253~278.
- \_\_\_\_\_ (2005b), 〈조사 ‘로’의 ‘대상성’에 관한 통시적 연구〉, 《형태론》 7.1, 111~134.
- \_\_\_\_\_ (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 \_\_\_\_\_ (2012), 〈현대국어의 필수적 ‘로’ 논항의 실현 원인〉, 《국어학》 63, 341~359.